대상, 감미료 사업 매각 "철수"

Nutra Sweet에 아스파탐 설비 및 기술 넘겨 … 시장전망 별로

대상이 저칼로리 고당도 감미료인 아스파탐 생산라인과 기술 일체를 미국 뉴트라스위트(Nutra Sweet)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감미료 사업에서 손을 뗐다.

대상은 뉴트라스위트에 군산공장 아스파탐 생산설비와 아스파탐 관련 지적재산권 및 특허 일체를 매각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산권과 특허 매각대금은 4800만달러(600억원)이다. 그러나 생산설비 매각대금은 뉴트라스위트와의 계약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스파탐은 당도가 설탕의 200배에 달하면서도 열량이 적은 저칼로리 고감도 감미료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이 생산해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일부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다.

대상의 아스파탐 사업을 인수한 뉴트라스위트는 일본 아지노모도(Ajinomoto)와 함께 세계 감미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대상은 감미료 분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반면, 전망은 밝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대상은 앞으로 발효, 종합식품, 전분당 등의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대상은 뉴트라스위트의 주문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군산공장에서 아스파탐을 생산해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02>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